

### 부처님 오신날 화제 108배 만일 결사 입제한 이동철씨 가족

## “절하면서부터 욕심 사라졌어요”



◇부처님 오신날을 기해 108배 만일 결사에 들어간 이동철 씨 부부.

“절 수행은 하심(下心)을 통해 가족과 직장에서의 화합을 이루는 좋은 방법입니다.”

2002년 5월 19일 부처님 오신날에 시작, 1만일(27년 4개월) 동안 108배 정진 결사에 들어간 가족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경기도 수서에 사는 이동철(51·

준히 절 수행을 해왔다. 또한 이 거사는 절 수행을 하면서도 능인선원, 정토회, 금강불교대학 등을 다니면서 불교 공부에도 매진해왔다.

절 수행의 깊은 뜻을 알게 된 이 거사는 이 때부터 절 수행 삼매에 빠지기 시작했다. 108배, 1080배, 3천배, 1만배를 하면서 욕심이 조금씩 사라지자, 불만으로 가득했던 가족과 직장이 점점 화목을 이루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아내의 동참을 이끌어냈고, 아들들에게 영향을 주어진 가족이 108배 정진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 거사는 얼마 전 자신의 가족이 동참하고 있는 양평 범왕정사의 '백만 불자 108배 1만일 결사' 추진 위원장도 맡았다. 주위의 추천도 있

### 지난 5년간 '절 수행'·불교공부 계속 下心통해 가정·직장서 화합 이뤄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부장) 씨 가족. 이동철 씨를 비롯 부인 김금숙(50) 씨, 승재(21), 용재(19) 군 등 이 거사 가족 4명은 부처님 오신날을 기점으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금강경과 천수경 독경, 108배 정진을 하고 있다.

이동철 씨 가족의 108배 정진 수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거사 가족은 97년 범왕정사 주지 청견스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동안 무

엇지만 이번 기회에 절 수행을 불교계와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산시켜 보겠다는 생각에서다. '하심'을 배우게 하는 절 수행이야말로 자신은 물론 나아가서는 사회를 건강하게 바꿀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다. 이동철 거사는 “절을 하며 부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욕심과 집착을 벗고 불법의 맑은 물을 담는 일”이라며 절 수행의 의미를 밝혔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 도와주세요



◇김옥자(왼쪽) 씨와 동생 옥순 씨.

### “병든 언니에게 신장 기증”

## 수술비 없어 애태워

신장 기증으로 생명을 나누려는 자매가 수술비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어려서부터 부모 없이 칠순 넘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김옥자(25), 김옥순(23) 자매는 어려운 집안 형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공장에서 일하던 언니 옥자 씨가 올 2월에 몸이 붓는 통증을 호소하다 결국, 만성신부전 증 진단을 받게 되자, 급기야 다

니런 직장까지 그만 두게 됐다. 다행히 동생 옥순 씨와 조직이 일치해 이식수술 날짜를 잡았지만, 22만원 사글세방에서 근근이 연명만하는 처지에 2천여 만원의 수술비는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다.

후원계좌 : 농협 053-01-243778(예금주 생명나눔) / 문의 : (02)734-8050

김철우 기자

### 증인 “가방주는것 본적없다”

## ‘뇌물수수’ 검찰주장 뒤집어

### 김태복장군사건 5차공판

김태복 장군 사건에 대한 공판에서 김 장군이 김문규 진천건설 사장으로 부터 2천만원을 수수했다는 군 검찰의 주장이 허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환송식 5차 공판에서 차원준 여단장 전속부관, 소상설 법당 재무, 서영오 불교신도회 부회장 등 증인들은 한결같이 '96년 7월 7일 여단장 공판에서 김문규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

했다'는 군 검찰의 주장이 정황상 맞지 않다는 내용의 증언을 했다.

차원준 전속부관은 '96년 7월 7일 오후 3시 17분에서 6시 17분 사이 김문규 씨가 공판에 방문한 적이 없으며, 방문했다면 몰랐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또 '김문규 씨가 김태복 장군에게 가방을 건넨 것을 본적이 없다'고 증언해 1심과 2심에서 가방을 갖고 왔다가 빈손으로 나갔다는 증언을 뒤집었다. 차 전속부관은, 1심과 2심의 증언은 군 검찰의 협박과 다름없는 강박감을 느낀 상황에서 유도질문에 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소상설 법당 재무도 '구금장을 보여주며 조사를 진행했다'며 차 전속부관의 증언을 뒷받침했다.

서영오 불교신도회 부회장은 '96년 7월 7일은 불교TV 촬영팀의 법당 취재가 있어 특별히 기억하고 있다'

며 '김문규 씨는 점심 회식이 끝나고 부대 방향이 아닌 금촌 방향으로 곧바로 돌아갔다'고 증언했다.

재판부(재판장 남재준 대장)는 이날 증인 증거조사를 마치고 심리공판을 최후진술을 들었다. 선고공판은 1주일 후 열기로 했다. 박봉영 기자

### 불교여성개발원·금강정사 등

## ‘희망의 등’ 나누기 동참

불교여성개발원과 분당 금강정사, 수원포교당이 본지와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공동주최하는 '희망의 등 나누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12일 연등축제 때 '이웃과 함께 하는 부처님 오신날'을 주제로 부스를 설치하고 '희망의 등'을 접수받았다.

경기 분당 금강정사(주지 지홍)는 최근 '자비의 저금통'이란 이름아래 캠페인에 동참했다.

수원포교당은 19일 부처님 오신날부터 '이웃을 위한 등하나 더 달기'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1일 100원 이웃을 위한 아름다운 나눔' 보시운동을 펼치고 있다. 김재경 기자

## 호국불교역사관 건립추진

### 1500평 규모 금산사, 승군실·역사실·수련관 등 예정

미륵신앙 근본도량인 김계 금산사가 나라 지키기에 앞장 선 처영대사와 1천여 승병을 기리는 호국불교역사관의 건립을 추진한다.

금산사주지 평상은 연면적 1천5백평 규모의 호국불교역사관을 건립키로 하고 문화관광부에 국비 5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 50억원, 자체 경비 6억원이 확보되는 대로 금산사는 올 하반기부

터 호국불교실과 승군실, 역사실, 체험관, 신앙실, 수련관, 세미나실 등을 갖춘 역사관 건립에 착수키로 했다. 금산사 김형문 재무과장은 "애국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사부대중들의 발원에 의해 이 일을 추진하게 됐다"며 "다양한 불교문화재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명이 참석할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개소식을 가진 춘천불교방송국은 주파수 100.1MHz로 오는 10월 첫 전파발사 등 시험방송을 앞두고 이달부터 24억3천만원을 들여 7월까지 방송장비와 방송인력 보강에 착수한다. 이어 9월 서울 불교방송국에 신인 직원들을 연수시켜 방송 실전에 대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칭권은 춘천 화천 양구 홍천과 원주권 일부지역 등 영서지역까지며, 불자들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불교교리와 교양 프로그램 및 불교계 뉴스 등을 방송할 예정이다.

초대 춘천불교방송국 사장은 신홍사 주지 마근 스님이 맡고 방송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신홍사와 낙산사가 주축이 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일 기자

### 춘천불교방송 10월 전파발사

#### 10일 개소식, 7월까지 각종 장비 보강

강원지역에서도 라디오 포교시대가 열린다.

춘천불교방송국 개소식이 10일 춘천 SK 생명빌딩 10층 사무실에서 불

교방송 이사장 도후스님과 신홍사 주지 마근 스님(설립추진위원장)을 비롯해 월정사 주지 현해, 등명나가사 주지 청우 스님 등 사부대중 1백여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경우로 건설 공사현장인 함경북도 신포시 금호지구에 남한 불자 근로자들을 위한 법당인 금호

과 주련 등을 선적, 11일 금호사현지에 도착해 봉안 설치했다고 밝혔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이현래 사

### 북한 경수로 현장 금호사 개원 남한 불자근로자 신행 도와

사(禪院)가 부처님 오신날인 19일 개원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8일 울산항에서 법당 개원을 지원하기 위한 불상과 좌대, 불단, 현판

무국장은 "현재로는 불자들이 자체적으로 신행을 할 수밖에 없지만, 조계종 정식 사찰 등록을 추진해 스님을 파견하는 일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 80대 비구니스님

#### 장학금 7천만원

80대 비구니 스님이 평생 아껴 모은 정재를 장학금으로 내놨다.

8일 경주캠퍼스에 따르면, 경남 통영 신광사 주지 선도 스님이 7일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방문해 현금 7천만 원을 장학금(5천만원)과 학교발전

기금(2천만원)으로 기부했다.

경주캠퍼스는 "조그만 사찰의 주지로 계시면서 틈틈이 모은 돈을 전부 내놓으신 것으로 안다"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발이고 있는 '학교 주변 땅 한 평 사기 운동'에 스님의 기부가 기록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도 스님은 평소에도 불우 이웃 돕기,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의 사회봉사 활동을 활발히 벌여왔다. 권형진 기자

### 불자의 생각

#### 부처님 일대기

불자들은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부다뉴스 네티즌 설문 조사에 동참한 131명의 불자들 가운데 72명(55%)은 '대강 안다', 57(43%)명은 '자세히 안다', 2명(2%)은 '잘 모른다'고

응답해 대다수 불자들이 부처님 생애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처님의 일대기중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어디냐는 질문에는 32명(24%)이 출가, 27명(21%)이 성불, 19명(15%)이 사문유관, 16명(12%)이 수하왕마, 14명(11%)이 각각 초전법륜과 열반, 3명(2%)이 탄생, 6명(5%)이 기타라고 응답했다. 임연태 기자

## 玉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 雪山白玉佛

우리부처님 코리아부다 KOREA BUDDHA http://www.korea.buddha.or.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6동 1653-6 세한빌딩 401호  
TEL : 서울 (02) 864-8834 부산 (051) 637-2333  
FAX : 서울 (02) 839-2185 부산 (051) 637-6888

고불총림방장 서용 큰 스님 / 추천서